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열네 번째

일곱 번째 봉인

Jeff Pippenger

2023-11-11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로부터 시작된 천사들의 유예 기간 동안의 전쟁은, 첫째 하늘에서 끝나게 될 인간과 천사들의 유예 기간 동안의 전쟁을 예표한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사탄은 에덴동산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루시퍼와의 셋째 하늘의 전쟁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도 유예 기간을 제정하셨다.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째 하늘의 전쟁은 인류를 위한 유예 기간의 끝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묘사된다. 통상적으로 그 세 세력은 주로 과거의 역사적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요한은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날들'을 말하므로, 우리는 끝이 처음으로 예시된다는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여 계시록의 상징들을 과거의 진리가 아니라 현재의 진리로 적용한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그가 시작한 전쟁과 에덴동산에서 그가 인간에게 가져온 첫 전투, 이 둘 모두에서,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타락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최면술"을 사용한 것으로 지목되어 왔다.

사탄은 에덴에서 첫 사람 아담을 시험했고, 아담은 원수와 논쟁하여 그에게 이점을 주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면의 힘을 행사했으며, 이 힘을 그리스도에게도 행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인용되자, 사탄은 자신에게 승산이 없음을 알았다.

"남녀는 자기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의 과학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탄이 가르치는 과학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메스메리즘과 최면술—본래의 지위를 잃고 하늘 궁정에서 쫓겨난 자의 과학—에 손대서는 안 된다." 마음, 품성, 그리고 인격, 713.

'사탄이 가르치는 과학'은 글로벌리스트 상인들에 의해 완성되었고, '마지막 때'에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며,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거짓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걸러내고, 그들이 이단이라 여기는 자들을 추적하며, 지구 역사상 가장 정교한 형태의 최면술을 구사한다. 셋째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은 첫째 하늘의 전쟁이 전개될 때 살아 있는 신실한 자들이 선지식으로 미리 경고를 받도록, 사탄의 전쟁의 이 속성을 강조한다. 월드 와이드 웹과 '정보 고속도로'의 통제 중심지가 미국에서 관리·통제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미국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온 세상을 미혹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메시지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의 상징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숲의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참된 신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지 못했던 갈멜산의 대결에서 끌어온 것이다. 바알은 남성 신, 아스다롯은 여성 신으로서 교회와 국가의 불경한 결합인

짐승의 우상을 나타낸다. 그들은 아합과 불경한 관계에 있던 이세벨의 선지자들이었다. 갈멜산 이야기에서 짐승의 우상의 두 예언적 증인은 미국이 먼저 미국에서 교황 체제의 형상을 세우고, 이어서 온 세상에서 그것을 세우게 되는 역할을 밝혀 준다. 갈멜산에서의 '불'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에 대한 증거여야 했다. 그것은 참 하나님을 식별하게 하는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의미했으며, 미국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때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사야서에서 처음부터 끝을 밝히시는 하나님은 옛 갈멜산의 바로 그 상황과, 또한 미국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때로 상징되는 예언적 상황을 다루신다.

너희의 송사를 내놓으라, 주께서 이르신다. 너희의 강한 근거들을 가져오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들로 그것들을 내어와서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 보라. 이전 일들이 무엇이었는데 보여 주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선언하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서 우리가 너희가 신들임을 알게 하라. 그렇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여 우리가 놀라 함께 그것을 보게 하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무하다.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가 올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부릴 것이며, 그가 고관들을 회반죽 위를 밟듯이 밟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하리라. 처음부터 전하여 우리가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미리 말하여 우리가 '그가 옳다'고 할 자가 누구냐? 참으로 보여 주는 자도 없고, 선포하는 자도 없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도 없다. 먼저 시온에게 '보라, 보라, 그들을'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주겠다. 이사야 41:21-27.

곧 다가올 일요일 법이 시행될 때 시작되는 첫째 하늘의 전쟁에서, 미국과 사탄 자신도 그들의 '명분'을 '제시'하도록 허락될 것이며, 이세벨의 신이 참된 하나님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것이다. 세상은 그 신의 예배일의 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이 '정보고속도로'를 통해 전 인류에게 전달되는 것은 '헛된' 일이며, 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선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다.

그 전쟁에서 십사만 사천과 그 후의 큰 무리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전쟁의 양측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불"로 표현된다. 모든 민족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정하기 위해 모일 것이며,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 두 부류의 증인이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고,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이전 일들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들을 내세워 의롭다 함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듣고서 말하기를 '이는 진리다' 하게 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앞에는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이방 신이 없을 때에 내가 선포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여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하나님임이라. 이사야 43:9-12.

갈멜산의 마지막 현현에는 사탄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다. 그 시연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은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그의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세운 이래로, 나와 같이 부르며 이를 선포하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차례대로 정할 자가 누구냐? 장차 올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너희에게 알리고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는 알지 못하노라. 새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무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무익하니, 그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44:6-9.

갈멜산의 최후의 대결에서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 그는 '옛 백성을 정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신 것은 '장차 올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갈멜산의 최후의 대결 직전에 봉인이 풀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한다.

사탄의 갈멜산 메시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표현된다.

또 그는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3.

그 구절은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인류에게 전해지는 현대 최면 과학을 통해 미국이 행하는 기적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절은 또한 사탄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스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동참하는 그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전 세계적 범위와 전례 없는 능력을 지닌 사역이 여기서 예언되어 있다. 1840~44년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파되었고, 또 일부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느 나라에서도 목격된 바 없는 가장 큰 종교적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들마저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일어날 강력한 운동에 의해 능가될 것이다.

그 사역은 오순절 날의 사역과 비슷할 것이다. 복음이 시작될 때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이른 비'가 귀한 씨가 싹이 돋아나도록 주어졌던 것처럼, 그 마무리 때에는 추수가 무르익도록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계속하여 따라가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니, 그의 나오심은 아침과 같이 준비되었고, 그가 우리에게 비처럼, 땅 위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호세아 6:3.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라." 요엘 2:23.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7, 21.

복음의 위대한 사역은 그 시작을 특징지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보다 약하게 드러나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시작될 때 이른 비의 부어짐 가운데 성취되었던

예언들은 그 마침에 늦은 비 가운데 다시 성취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바라보았던 '새롭게 하심의 때'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주의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심의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도말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19, 20.

하나님의 종들은 얼굴에 빛이 비치고 거룩한 헌신의 광채로 빛나며,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서둘러 다닐 것이다. 온 땅에서 수천의 목소리를 통해 그 경고가 주어질 것이다.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으며,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사탄도 거짓된 이적으로 역사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13. 그리하여 땅에 사는 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대쟁투, 611, 612.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때에 이르면, "땅의 거민들이 각자의 입장을 정하도록 이끌릴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증인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서둘러 다닐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천의 목소리로 그 경고가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루는 일은 "오순절 날의 사역과 유사할 것"이며,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에 합세하는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오순절에 불은 성령의 부어 주심의 상징이었고, 불은 또한 사탄의 거룩하지 않은 영의 부어 주심의 상징이기도 하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묘사한 후, 그는 일곱째이자 마지막 인이 열리는 것을 밝힌다. 최종, 곧 일곱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봉인 해제되는 것을 상징하며, 또한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도록 되어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예언을 가리킨다. 일곱째 인, 일곱 우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모두 같은 진리를 상징하는데, 그 진리는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에 열려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창조의 능력을 강조한다. 일곱 우레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역사를 가리키고, 일곱째 인은 두 증인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닌 창조의 능력을 받는 그 역사 동안 성령의 부어주심을 가리킨다. 그 '진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가브리엘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능력을 읽고 듣고 지키기로 선택하는 이들에게까지 전달된다.

그가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에는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섰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져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드리게 되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한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천사는 그 향로를 가져 제단의 불로 그것을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소리들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요한계시록 8:1-5.

구절들에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일곱 나팔"을 가졌다. 그 일곱 나팔의 천사들은 전통적으로 일요일 예배 강제에 대한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이해되어 왔다. 이교 로마는 콘스탄티누스 치하에서 321년에 최초의 일요일 법을 제정했고, 330년까지 그의 제국은 동서로 분할되었다. 그때부터 처음 네 나팔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그것들은 그의 제국을 상대로 일어난 역사적 세력들을 나타냈고, 그 결과 476년에 이르러 로마의 힘과 영광의 상징이던 로마 도시는 더 이상

로마인이 통치하지 않게 되었다. 교황권이 538년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 법을 제정했을 때, 로마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 무함마드가 일으켜 세워졌는데, 이는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곧 첫째와 둘째 화)로 표현되었고, 이 나팔들은 이슬람을 상징했다. 그 나팔들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옳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9장에서 그것들이 제시되는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재앙들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 곧 귀신들과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다니지도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살인과 주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9:20, 21.

일곱 나팔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마지막 재앙이다. 요한계시록 9장의 일곱 나팔의 예언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아도, 그것들이 일곱 마지막 재앙과 상응하는 특성들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일곱째 인의 개봉은 은혜의 시기가 막 끝나려 하고, 일곱 마지막 재앙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는 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일곱째 인을 여섯을 때' 금향로를 가진 한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섰다.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드리게 하였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한 그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에 앞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신자들의 합심된 기도가 있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이것을 구하는 일이 우리의 첫째 되는 일이어야 한다. 주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세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는 것보다 더 기꺼이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복과 겸비와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다.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기대될 수 있다." 선택된 기별, 1권, 121.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14만 4천 명의 인침을 가리킨다. 그 인침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단순히 기도라는 활동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기도로 시작된다. 그 특정한 기도는 다니엘서에서 확인되는데, 그 책은 물론 요한계시록이기도 하다.

요한계시록의 요한과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마지막 때"에 첫째 하늘의 전투 동안 하나님의 증인이 될 자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언을 증언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구절들에서 일곱째 인으로 나타나 있다. "금향로"를 가진 천사에게 올라가는 기도는 그의 책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로 상징된다. 그 기도는 "일곱 때"의 예언과 관련하여 모세가 개요를 제시한 구체적인 기도이다. 그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다니엘은 자신의 이중적 기도의 맥락을 모세의 "저주"와 "맹세"라는 용어로 제시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은 책이며, 다니엘서에 있는 같은 예언의 흐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받아 전개된다.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불의 부어짐을 가져오는 기도는 다니엘의 '일곱 때' 기도이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예언을 설명해 주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그 기도이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20절에 해당하는 그 기도의 끝에, 가브리엘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려왔다.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받는 기도들은 해가 지는 때, 곧 '마지막 날들'의 저녁에 올라가는 기도들이다.

내가 말하며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참으로 내가 기도 중에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급히 날도록 하심을 받아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와서 나를 만졌다. 다니엘서 9:20, 21.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도 자복하는 기도였다. 그의 기도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와 연결된 회개의 기도의 전형이다.

너희 중에서 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쇠잔해 갈 것이며, 또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쇠잔해 갈 것이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곧 그들이 내게 범한 그 허물과 또한 그들이 내게 거슬러 행한 것을 자백하고, 또 나도 그들에게 거슬러 행하여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갔음을 인정하며, 그때에 그들의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 26:39-42.

모세는 "일곱 번"과 관련된 형벌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다툼"이라고 부른다. 그런 다음,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종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힌다. 그들은 다니엘이 대표하여 한 것처럼 자기들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도 자백해야 했다.

이 특정한 기도가 십사만 사천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 의해 드러질 때,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로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던지니, 이에 음성들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진리"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거룩한 불은, 미국과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짓 "불"의 메시지와 대조되며, 곧 주일법인 그 "지진"의 때에 일어난다.

스가랴서에 따르면, 다니엘도 겪었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역사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와 머릿돌을 놓았다고 한다.

그가 대답하여 내게 일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권세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그가 함성 가운데 그 머릿돌을 들어 올리며 "그 위에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고 외칠 것이다.' 또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리하면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작은 일의 날을 누가 업신여겼느냐? 그들이 기뻐하여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리니, 그 일곱은 여호와와의 눈들이라. 그것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느니라.' 스가랴 4:6-10.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자손'을 의미하며, 둘째 천사의 기별의 상징이다. 그 기별은 자정의 외침의 기별과 결합될 때 초기 재림운동에서 '기초'를 놓았다. 스룹바벨은 또한 '머릿돌'이 놓일 때 Future for America 운동에서 재림운동의 마지막 단계에 반복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한다.

세상은 '정보 고속도로'라는 거리의 죽은 뼈들의 골짜기에서 살해된 두 증인을 두고 기뻐했다. 그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났을 때 세상은 두려워했고 하늘은 기뻐했다.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는 '마지막 날들'을 지목하고 있다. 스가랴는 그들이 '그 일곱'을 볼 때, 곧 두 증인의 부활에서 기뻐한다고 알린다. '그 일곱'은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이다. 첫째 천사의 운동은 모세의 '일곱 때'의 기초석을 놓았고, 그 '진리'는 1863년에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천사의 운동의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식되고 성취되며, 합당한 이종의 기도와 함께 실행될 때, 참된 불이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 땅에 던져질 것이다.

일곱째 인의 개봉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